

셀 모임 순서지 (2020년 12월 넷째주)

Welcome - 아이스 브레이크

☞ 2020년 가장 기억에 남는 감사제목을 나눠주세요.

Worship - 찬양

☞ 빈 들에 마른 풀 같이, 나의 등 뒤에서

Word - sharing

1. 주일 설교 나누기

☞ 주제: 광야의 은혜 (신명기 2장 7절)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광야로 비유합니다. 광야의 특징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불확실한 곳입니다. 지구상에는 1500만km²를 넘는 광대한 광야와 사막이 있다고 합니다. 전 육지의 1/10 이상입니다. 왜 하나님은 광야를 만드셨습니까? 광야를 통해 주어지는 은혜가 있을까요? 있다면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광야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렘에 이르매" (출3:1)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레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막1:3-4)

모세는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보냅니다. 나의 80이 되었지만 삶에 아무런 열정도 애착도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세레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광야는 별을 받는 장소가 아닙니다. 사람이 없고, 외롭지만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곳이기도 합니다. 스케줄이 필요한 곳도 아닙니다. 고요하게 하나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두 번째로 광야에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들이 숙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출13:20-22)

사막과 광야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곳입니다.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광야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광야에는 생수의 은혜가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출15:22)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생수입니다. 시내 광야에는 오아시스가 450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문 곳은 다 오아시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같은 우리 인생에 세 가지 오아시스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교회입니다.

네 번째로 광야에는 매일 만나가 내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8:3)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아침마다 신선한 만나를 공급받았습니다. 목이 마를 때에도, 배가 고플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 적용

- 1) 나의 광야 시절은 언제였습니까? 그 때 나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 2) 광야에서 원망이 아닌, 감사를 고백하기 위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Work - VIP 나누기 : 전도할 사람의 명단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기

☺ 교회를 위한 기도제목

1. 코로나 확진자의 숫자가 줄게 하시고, 얼어 붙은 모든 것들에 따뜻한 온기가 흐르게 하소서.
2. 2020년을 잘 마무리하고, 은혜로 새 해를 맞이하게 하소서.
3. 교회주차장을 비롯하여 교회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새가족들이 잘 정착케 하소서.

183 빈 들에 마른 풀같이 (통일 172)

There shall be showers of blessing
 There shall be showers of blessing
 There shall be showers of blessing
 There shall be showers of blessing

D. W. Whittle, 1882
 보봉으로
 J. McGranahan, 1882

1. 빈 들에 마른 풀 같 이 시 들 은 나 의 영 혼
 2. 반 가운 빗 소 리 들 러 산 천 이 춤 을 주 네
 3. 철 따 라 우 로 를 내 려 초 목 이 무 성 하 니
 4. 참 되 신 사 랑 의 언 약 어 길 수 있 사 오 라

주 님 이 약 속 한 성 령 간 절 히 기 다 리 네
 주 볼 비 로 내 리 는 성 령 내 게 도 주 옵 소 서
 갈 급 한 내 심 령 위 에 성 령 을 부 으 소 서
 오 늘 에 흠 족 한 은 혜 주 실 출 믿 습 니 다

후 령
 가 물 어 메 마 른 땅 에 단 비 를 내 리 시 듯

성 령 의 단 비 를 부 어 새 생 명 주 옵 소 서 아 멘

쉬운 기타코드(capo=3rd) B^b→G F7→D7 E^b→C Gm→Em

일어나 걸어라

최용덕 작곡 최용덕 작사

나 의 등 뒤 에 서 나 를 도 우 시 는 주
 나 의 인 생 - 길 에 서 지 지 고 관 하 여
 평 안 히 갈 - 을 갈 땀 보 어 지 않 아 도
 때 때 로 뒤 돌 아 보 면 여 전 히 계 신 주

매 일 처 럼 주 저 았 고 싶 을 - 때 나 를 - 밀 어 주 시 네
 지 치 고 관 하 여 넘 어 질 때 - 면 다 가 와 손 내 미 시 네
 잔 잔 한 미 소 로 바라 보 시 - 며 나 를 - 재 촉 하 시 네

일 어 나 걸 어 라 내 가 새 힘 을 주 리 나
 (으 아 : 일 어 나 라)
 일 어 나 너 걸 어 라 내 너 를 도 우 리